

‘우클릭’ 문재인 ... ‘배수진’ 안철수



17일 오전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중앙당, 시장 선대위 관계자가 문재인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비문 선대위 합류 ‘통합정부론’ 김현철 등 상도동계 영입 임박 김종인·정운찬·홍석현 리브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영도 확장 행보가 거침없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기반인 중도층을 흔들며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당내에서는 ‘비문(비문재인)’ 진영에서 박영선 의원과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해 민주당에 입당한 진영 의원을 선대위에 합류시켰고 당 밖으로도 ‘통합정부’를 앞세워 다양한 세력에 손을 내밀고 있다. 문 후보는 우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맥을 잇는 ‘상도동계’ 인사들에 대한 영입

노력에 정성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17일 YTN 라디오에 나와 상도동계 좌장 격인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과 관련, “문 후보를 지원하는 것으로 마음을 정리하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나아가 문 후보 측은 박영선 의원의 합류를 기점으로 ‘통합정부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통합정부론’을 내세웠던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 정운찬 전 국무총리,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의 합류를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김 전 대표에게 문 후보의 뜻을 전달했다. 함께해 달라는 간곡한 청을 전달했다”며 “홍 전 회장도 문 후보가 직접 만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 역시 조만간 선대위에 합류할 것이라는 관

측도 나오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적폐정산’ 구호도 사라지는 분위기다.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문 후보가 적폐세력이라는 단어를 앞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문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준동의 추진’과 기업의 ‘기존순환채자 해소’ 내용이 빠진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를 두고 문 후보가 안보·경제 공약에서 ‘우클릭’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한·미·중 고위전략회의 추진’이라고 밝혔던 부분도 ‘외교국방(2+2) 포함 고위전략회의 제도화’로 바뀌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7일 오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국민의당 광주전남 선대위 출범식에서 박지원 대표와 정동영·주승용 의원, 시·도당 위원들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국회의원 사퇴서 제출 “모든것 바쳐 대통령 도전” 국민의당 의석 39석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개시 첫날인 17일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면서 대선 필승 의지를 다졌다. 국민선대위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안 후보가 오늘 아침 10시 20분 보좌진을 통해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이기는 한국을 만드는 데 안 후보의 모든 것을 걸었다”며 “국민과 함께 미래를 만들고 대한민국을 다시 꿈꾸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국민

을 위해 도전하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 안철수 후보의 도전에 함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로써 국민의당 의석수는 40명에서 39명으로 감소했다. 안 후보는 지난 15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제19대 대통령 후보 등록을 직접하면서 당초 예고한 대로 후보등록과 동시에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안 후보는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제 모든 것을 바쳐서 꼭 우리나라를 구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면서 “그 각오의 일환”이라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안 후보는 이같은 배수진으로 ‘문재인-안철수’ 양강 구도가 팽팽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고 대

선에 모든 것을 던지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여기에 선두다툼을 벌이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2012년 대선에서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대선을 치른 것과 대비해 차별화를 꾀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안 후보의 의원직 사퇴로 국민의당은 선거보조금에서 3200만원을 덜 지급받게 된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18일 중앙선거위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오늘 사퇴서를 제출하면 선거보조금 3200만 원이 감액되고 내일 제출하면 전액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보조금이 줄어드는 상황을 감수하고 오늘 제출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보수 표 구걸” vs “계파 패권 세력”

민주-국민의당 선거운동 첫날부터 설전

제19대 대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 무섭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이 정면 충돌했다. 문재인 후보 측은 안 후보의 공식 벽보에 당명이 빠진 점을 지적하며 보수층의 표를 구걸하려는 속셈이라고 몰아붙였고, 안 후보 측은 문 후보를 겨냥해 ‘계파 패권 세력’이라고 받아쳤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열린 필승다짐대회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선거 포스터에 당명이 빠진 것과 관련 “결국 보수 세력 표를 구걸하겠다는 것 아닌가. 스스로 보수 세력 정권 연장의 도구가 되겠다는 것 아닌가. 이런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안철수맨’이던 금태섭 민주당 선대위 전략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안철수 후보는 새정치연합 중앙위원장 시절 운영관 전 장관을 통해 당의 정강·정책에서 6·15와 10·4 선인 등을 삭제하자고 주장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금 부본부장은 “이는 결과적으로 5·18이나 4·19도 같이 삭제해 하자는 결론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지난 13일 TV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는 안 후보가 민주당 공동대표 시절 당 강령에서 5·18과 6·15 삭제에 나섰다고 주장했으며 안 후보는 이를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맞서 안철수 후보 측은 민주당 문

재인 후보 측은 ‘계파 패권세력’으로 규정하고 대선 구도를 패권세력과 개혁세력의 대결로 형성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광화문 출근길 유세에서 “계파 패권주의는 국민의 이익보다 끼리끼리 나눠 먹는 것”이라며 “말 잘 들리고 줄 잘 서는 사람을 쓰면 대한민국의 위기가 반복된다”고 비판했다. 김우정 국민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 당일 안철수 후보는 진도 팽목항에 내려가 국민과 아픔을 함께했으나, 문재인 후보는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보면 문 후보는 참사 당일 여의도 한정식집과 일식집에서 식사하는 등 맛집 투어를 했다”고 비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가 정권교체 중심 되어달라”

文 임종석 비서실장 서신 호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임종석 비서실장은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17일 “광주가 호남이 훗날 민심의 열망을 실현하는 데 중심이 돼 진정한 정권교체의 주역으로 새로운 시대를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임 실장은 이날 광주 전남 언론인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은 국민은 광주의 선택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흥 출신인 임 실장은 제16대 국회의원을 지낸 문 후보 측 주요 호남인사다. 그는 “세월호로 상징되는 적폐의 구조를 타파하고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는 희망의 촛불 민심이 호남민심의 열망”이라며 “누가 새로운 시대에 더 적합한 지 선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목할 점은 국유 보수 세력



의 움직임”이라며 “그들은 아직도 사회 전반의 기득권 세력이고, 곳곳에 영향력이 상당한 적폐의 중심으로, 위장된 국민 통합론을 내세우면서 보이지 않게 안철수 후보를 매개로 반문재인 전선을 만들어 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는 다소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안 후보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바꾸기도 하고 훗날 민심과 다른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임 실장은 “누가 더 진정한 정권교체에 적합한 후보인가, 누가 5·18 민주화운동과 6·15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정부 적통을 이을 후보인지 호남이 냉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반기문 지지모임 잇단 安 지지선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지지모임이 잇따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대표적인 반 전 총장 지지모임인 ‘반결음’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병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반전 총장을 지지했던 우리 반결음회는 현 난국의 대한민국을 하나로 이끌어갈 국민의당 안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반 전 총장 지지모임인 ‘반사모 중앙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또 지난 9일에는 반 전 총장 팬클럽인 ‘반딧불이’와 ‘별로별 시민포럼’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후보 지지 입장을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는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NPL관련업무를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 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 NPL(근저당권)투자는?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상가, 공장, 토지, 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 광주시 광산구 남산동 733-1, 733-6
 - 토지 : 총 1,370㎡
 - 용도 : 주거지 1층 건물 철거조건
 - 6억5천만원
- 전남 나주시 다시면 월대리 587-27외 3필지
 - 토지 : 총 5,524㎡
 - 용도 : 주거지 2층
 - 8억3천만원
- 전남 해남군 산이면 초송리 579-49외 3필지
 - 토지 : 총 866㎡
 - 용도 : 나대지
 - 2억5천만원 (교환가능)

경매, NPL채권 배우면서 투자 가능하신 분 3명 모집 (2017년 3월 6일 ~ 2017년 3월 30일 까지)

NPL 채권 매입 전문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지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빛, 고통의 시작입니다 -

등록번호 2017금감원-0790